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앤서니 김〉

〈이은정〉

## 美 프로 골프무대

# 한국男女 펄펄 날다

### AT&T 공동선두 앤서니 김, '골프 황제' 우즈와 맞대결

PGA

'라이언 vs 타이거' 재미교포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내셔널 최종 라운드 챔피언 조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앤서니 김은 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콩그레셔널 골프장(파70·7천255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타를 줄여 10언더파 200타를 기록했다. 이날 이글 1개, 버디 2개,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의 어지러운 성적표를 받아든 우즈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오른 앤서니 김은 6일 오전 3시20분 우즈와 함께 4라운드를 시작한다.

마이클 앨런, 캐머런 베크먼(이상 미국)과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리던 앤서니 김과 우즈는 똑같이 16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전반 9홀까지 버디와 보기 2개를 맞바꾼 앤서니 김은 12번홀(파4)에서 93m 정도 거리의 두 번째 샷을 홀 1.2m에 바짝 붙여 한 타를 줄였고 파5 16번 홀에서도 오른쪽 러프 216m 거리에서 친 두 번째 샷을 홀 15m 거리에 갖다 놓으며 한 타를 더 줄였다. 우즈와 처음으로 같은 조에서 경기를 하게 된 앤서니 김은 "너무 기다려왔다. 흥분된다"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생애 68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우즈는 3라운드까지 선두 또는 공동 선두를 달렸던 47차례 가운데 44번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최종 라운드에 강해 앤서니 김이 어떤 경기 내용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회 주최자이기도 한 우즈는 또 최근 스트로크 대회 19회 연속 톱10을 기록 중이기도 하다. 뉴질랜드 교포 이진명(19·캘러웨이)은 6언더파 204타로 공동 8위로 4라운드를 맞게 됐고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은 2언더파 208타, 공동 28위를 달렸다. /연합뉴스

### 코닝클래식 이은정 하루 10언더 대회 3라운드 최저타

LPGA

이은정(21)이 하루에 10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두르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오웬스 코닝클래식 3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올랐다.

이은정은 5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 하일랜드 메도우스 골프장(파71·6천428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이글 1개로 10언더파 61타를 쳐 중간합계 18언더파 195타, 단독 1위에 나섰다. 이은정이 세운 이날 61타 기록은 이 대회 25년 사상 3라운드 최저타 기록이 됐다. 종전 기록은 카리 웹(호주)이 지난해 기록한 62타였다. 대회 최저타 기록은 역시 지난해 1라운드에서 폴라 크리머(미국)가 세운 60타다.

전반 9홀에서 버디 4개로 몸을 푼 이은정은 10번홀(파4) 100m 정도 거리에서 피칭 웨지로 친 두 번째 샷이 그대로 이글로 연결되며 기세를 올렸다. 이은정은 "약간 짧은 것 같았는데 들어갔다"면서 기뻐했다. 이날 퍼트를 22개로 막으며 자신의 한 라운드 최저타 기록을 4타나 줄인 이은정은 "원래 퍼트가 좋은 편이 아닌데 오늘만큼은 달랐다"며 "코스가 내 스타일에 맞는다. 내일도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5월 코닝 클래식에서 한 라운드에 이글 3개를 기록한 5번째 선수가 되며 이름을 알렸던 이은정은 지금까지 2008년 세이프웨이 클래식 공동 11위가 자신의 최고 성적이다. 김송희(21)와 모건 프레셀(미국)이 이은정에 4타 뒤진 14언더파 199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신지애(21·미래에셋)는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타를 줄였지만 12언더파 201타로 이선화(23·CJ),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청야니(대만), 펑샨샨(중국) 등과 함께 선두에 6타 뒤진 공동 4위에 그쳤다. 재미교포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1타를 줄여 9언더파 204타, 공동 22위로 3라운드를 마쳤고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11언더파 202타, 공동 1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하루 1,000배팅… 이기는법 배운다

### 상무 유니폼 입고 친정 KIA 찾은 김주형

"이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상무에서 군복무중인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김주형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KIA와의 2군 경기를 위해 고향 광주를 방문했다. 김주형은 왼쪽 손목이 좋지 않아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친숙한 덕아웃에서 반가운 얼굴들과 재회했다.

지난해 12월 입대한 김주형은 지난달 일병을 단 신참이다. "군생활에 힘든 점도 많지만 KIA에서 함께 운동을 했었던 김희걸, 이상화, 김성계 등이 큰 힘이 되주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고된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김주형은 상무 김정택 감독의 특별 지시로 1천 배팅을 한 뒤에 일과를 마감하기도 했다.

김주형은 "기술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았지만 큰 부담없이 경기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동성고 출신의 김주형은 파워로 고교무대를 평정하며 2004년 KIA 1차 지명선수로 3억원의 계약금을 받고 프로에 입단한 '특급 유망주'였다.

그러나 5년이라는 시간 동안 218경기에 출전한 김주형은 479타수 101안타, 타율이 0.211에 불과했다. 통산 홈런도 12개. 무엇보다 불안한 수비로 1군과 2군을 오가며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 시즌 85년생 동갑내기 대졸 신인 나지완과 함께 KIA를 이끌어갈 차세대 거포로 조범현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활약 끝에 결국 군입대를 선택했다.

상무 유니폼을 입은 김주형은 올 시즌 0.274의 타율과 9홈런 33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최상급의 성적은 아니지만 야구를 다시 생각하고 배워나가는 중이다. 무엇보다 수비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한결 여유가 생겼다.

김주형은 "특별한 수비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적으로 안정되면서 수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상무에서 이기는 법, 이기고 싶다는 간절한 심정을 배워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 김정택 감독도 김주형의 수비에 합격점을 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주형은 내년 10월30일 제대까지 남은 긴 시간을 진짜 야구선수로 거듭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하며, 광주로 돌아올 날을 꿈꾸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추신수 15번째 2루타

### 연타석 홈런 등 3경기 연속 안타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3경기 연속 안타를 때렸다.

추신수는 5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홈경기에서 우익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장, 장쾌한 2루타를 터뜨리고 3타수1안타로 게임을 마쳤다. 전날 연타석 홈런 포함 4안타를 때리고 7타점이나 쓸어담으면서 대폭발했던 추신수는 이날은 첫 타석부터 수난을 당했다.

2회 선두 타자로 나온 추신수는 상대 투수 빈 마자로의 몸쪽 떨어지는 볼에 오른쪽 발을 맞고 1루에 걸어나갔다.

4회 1루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4-1로 앞선 6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직구를 퍼올려 좌중간 펜스를 맞히는 2루타를 때려냈다. 시즌 15번째 2루타. 그러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 이르진 못했다. 8회에는 3루 땅볼에 머물렀고 시즌 타율은 0.301을 유지했다.

클리블랜드는 5-2로 이겼다. /연합뉴스